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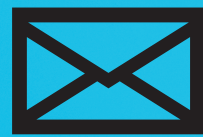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2016. 06

No.10



극장도  
도시도  
거리도  
아닌,  
영화제  
사무실  
로의,  
초대장



# 영화제에서 만남 사람들



영화제를 좋아하는 건 영화를 좋아하는 것과 조금 다른 마음입니다. 영화만 좋아할 적에는 양 옆자리에 아무도 없는 극장에 홀로 비스듬히 앉아서 스크린만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영화제를 좋아하게 되고는 극장 안에 사람 북적이는 게 신나고 자꾸만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건 영화와 축제를 나란히 좋아하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기도 했고, 모든 걸 떠나 제법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니다. 그래서 몇 년간 영화제 자원활동을 했고, 지금은 영화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에 가면 스태프며 자원활동가의 분주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잡고 열심히 말을 하거나, 통화를 하고 있거나, 뛰고 있거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타닥거리거나, 그도 아니면 아예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번 NOW에서 만난 이들은 그 시간에 대체 무얼 했는지 또, 그 시간을 위해 무얼 했는지 이야기를 풀어 놓습니다. 그 속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들의 바쁨을 마주할 적 조금 따뜻하고 가깝고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NOW는 작년에 이어 지역 독립영화인들의 이야기와 독립영화 활동가가 사랑하는 영화, 육성으로 듣는 독립영화 요모조모를 전합니다. 마침 인천독립영화협회에서 지역 영화제 이야기가 날아왔습니다. <무산일기>에서 컵을 닦던 뒷모습이 마음에 얹혀 시작한 독립영화와의 만남, 인디스페이스 트레일러에 얹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함께합니다. 이번 호부터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독립영화 세계,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첫 만남다운 대면식 현장이 지면에 펼쳐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호를 함께한 모든 분들을 영화제에서 만났습니다. 이래서 영화제를 끊지 못하는 게 아닌가 잠깐 또 생각했습니다.

김송요

## 03 SPECIAL \_ 영화제 스태프의 세계

### 04

서울독립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벌, 인디애니페스트  
사무국장 집담회

### 08

부산국제영화제 수석프로그램매 김지석

### 12

영화제 기술팀 전문업체 진미디어

### 16

인디다큐페스티벌 前 홍보팀장 김수연

### 18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마케팅팀 박사라

## 20 RELAY TALK \_ 장재구

### 21 다른 영화 말고 너 \_ <무산일기>

### 22 TELL ME SOMETHING \_ 장형운

### 23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_ 윤자영

#### 커버사진 임준형

#### 장소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영화제가 개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엔 무엇이 있을까? 영화를 만들고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이 특별한 축제 뒤엔 상영되는 작품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 이번 NOW에서는 영화제를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제’라는 커다란 유기적 조직의 보이지 않는 안쪽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초대장을 건내려 한다. 영화제의 살림을 꾸리고 행사 운영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사무국장부터 상영작과 섹션을 구성하고 감독과 소통하는 프로그램팀, 객석 뒤에서 영화 상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기술팀, 영화제를 알리고 언론을 비롯한 외부와 영화제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홍보팀, 행사 기간 중 크고 작은 업무를 나누며 영화제를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자원활동가까지. 초대장을 받아들고 축제의 현장에 함께 선 관객 역시도, 단단하고 든든한 일원임을 새기면서.



# 독립영화제 사무국장의 은밀한 매력

서울독립영화제 김동현·  
인디다큐페스티벌 최민아·  
인디애니페스트 최유진  
사무국장 집담회

영화제 사무국장은 인기가 많다. 인터뷰 중에도 실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가 그걸 증명한다. 사무국에서 걸려오는 전화, 감독에게 걸려오는 전화, 기관 관계자에게 걸려오는 전화 등으로 사무국장의 전화기는 멈출 틈이 없다. 긴 통화를 하다 전화를 끊으면 또 다시 전화기가 울린다. 이토록 열렬한 사무국장의 인기 비결은 대체 뭘까?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최민아 인디다큐페스티벌 사무국장, 최유진 인디애니페스트 사무국장이 모여 사무국장의 은밀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어쩌다 사무국장이 되어...

**김동현(이하 동현):** 우선 언제부터 영화제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사무국장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해보자. 언제부터 인생이 꼬이게 된 건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 (웃음)

**최유진(이하 유진):**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문화 기획을 하고 싶어 대학원에 갔다. 대학원 총무로 일하던 도중 영화제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제안을 수락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당시 협회 사무국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그 아무도 없는 사무국에서 일한다고 했던 거다. 굉장히 순진해서 잘 모르고 꼬임에 넘어갔던 거지. 그때는 심지어 혼자인 게 좋기까지 했다.

**동현:** 지역을 기반으로 영화운동을 하고 있었고 정동진독립영화제에서 활동했는데, 갑갑함을 느끼고 있을 차나 지금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이던 조영각 선배에게서 제안이 왔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락했다. 2006년 서울독립영화제 프로그램 팀장으로 일하다가 2008년부터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다. 정동진영화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화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서울독립영화제 일은 3일 동안 20편 정도의 영화를 트는 정동진영화제 일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부 상근 구조이고 규모가 있는 만큼 프로그램팀, 홍보팀, 운영팀 등 팀이 체계적으로 협업하며 업무가 진행되었다. 매뉴얼도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었다.

**최민아(이하 민아):** 2005년부터 꽤 오랫동안 영화제 자원활동과 단기 스태프를 했다.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처음 자원활동을 했을 때 기술팀으로 일했는데, 영화를 직접 상영하는 역할에 큰 기쁨을 느꼈고 그 이후로 기술팀만 찾아 참여했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독립영화제 프로그램팀 스태프를 했고, 2010년 인디다큐페스티벌 프로그램팀 스태프로 참여하며 인디다큐페스티벌과 처음 연을 맺어 이후 사무국에 결합하게 됐다. 사무국장 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맡게 된 거라 처음엔 어렵고 무겁기도 했다.



## 사무국장, 그 참을 수 없는 무거움?

**동현:** 본격적으로 사무국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해 보자. 사실 영화제 실무를 엄격하게 분장하면 업무가 프로그램팀이나 홍보팀이나 운영팀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할 일이 없다. 그때 사무국장의 역할은 목표에 맞춰 일정을 관리하는 거다. 각 팀에 업무를 잘 배분해주고, 업무 진행 과정을 확인하면서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한다. 총괄과 관리 업무가 핵심이다.

**유진:** 특성상 사무국 일이라는 게 수치화되거나 수량화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사무국장이 되도록 일을 맡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면 그래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다.

**동현:** 그리고 사무국장들은 돈 문제 엄청 걱정한다.

**유진:** 맞다. 영화제에 대한 공적지원이 있는 것은 다행이다. 기업후원을 끌어들이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진된다. 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를 잘 집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공적지원금의 정산시스템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은 문제이지 않나 싶다.

**동현:** 사무국장의 여러 업무 중 하나가 회계인데, 우리의 경우 내가 맡아서 한다. 회계를 잘하는 유전자와 그렇지 않은 유전자가 나눠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웃음)

**유진:** 나도 회계는 직접 맡아서 한다. 나눠서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앓아서 영수증 풀

**서울독립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에 한국청소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99년 한국독립단편영화제를 거쳐 2002년 지금의 이름과 형태로 자리잡았다. 2001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경쟁독립영화제로서 2006년까지 2개관으로 개최하다가 2007년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개관하면서 3개관으로, 2013년부터는 4개관으로 상영규모를 늘렸다. 또한 2008년부터는 제작, 배급,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다.



김동현

**인디다큐페스티벌**

인디다큐페스티벌은 2001년 한국독립영화협회 다큐분과 감독들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상영 기회 확대를 위해 조직한 영화제다. 2008년 국내신작전을 도입하면서 신진 작가 발굴 중심으로 지향성을 변화시켰고, 2009년부터 1개관에서 2개관으로 상영규모를 확대했다. '봄' 프로젝트를 통해 신진 작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제작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민아:** 처음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다. 처음 일 할 때 같은 사무실을 쓰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지연 사무국장에게 많이 배웠다.

**동현:** 사무국장님 실무를 책임지면서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민아:** 개인적으로 크지 않은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 게 어려웠다. 집행위원장에게 하나하나 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기획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논의를 통해 발전을 시키면 좋는데, 혼자 있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없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생긴다.

**유진:** 처음 협회에서 일할 때는 혼자라서 좋았다. 그런데 갈수록 같이 일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사람이 들어오니까 일도 빨리 진행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동현:** 작은 단위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 것 같다. 단기 스태프들을 포함해서 스태프와 잘 이야기해야 하고 집행위원들과도 잘 소통해야 한다.

**민아:** 인디다큐페스티벌 집행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영화제를 꾸려오던 사람들인데다 나는 경험 없이 시작해서, 내가 집행위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질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수행하는 편이다. 오히려 계속 혼자 있다가 영화제 전후 3개월 정도 단기 스태프들과 일하게 될 때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

려움이 있다. 예산상의 문제로 스태프가 워낙 짧은 기간 동안 결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앞으로의 숙제이기도 하다.

**동현:** 사무국 내부 조율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행사 공간이 2개관에서 3개관으로, 3개관에서 4개관으로 커지면서 점점 업무가 많아져 힘들다. 사무국원들이 매일 밤새고 노동집약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며 내가 인력 배분을 잘 못했구나 싶기도 하고, 예산이 더 있으면 인력을 더 투입시킬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기도 한다.

**유진:** 사무국엔 항상 할 일이 있다. 사람이 더 들어와도 새로운 일이 또 생길 거다.

**민아:**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업무를 줘도 되나, 혹시나 버거워하지는 않으려나 생각하게 된다.

## 상영활동가와 상영기획자로서의 고민 그리고 자부심

**동현:** 전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서 사람들과 일을 잘 해내는 노후가 필요하다. 특히 영화제에선 감독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프로그램팀장이었을 때는 감독에게 내 존재를 알려야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앞섰다면, 사무국장님이 되고 나서는 행사의 호스트가 되어 감독이나 영화인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유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사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편이 아니다. 일할 때만 말한다. (웃음)

**동현:** 활동이 자리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사무국장이기도 하지만 상영할



최민아



최유진

#### 인디애니페스트

2004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출범 후, 2005년 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인디애니페스트를 개최했다. 당시 국내 영화들이 상영될 기회가 많지 않아, 감독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인디애니페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신작의 발굴과 더불어 창작자간에 교류가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2016년 국내경쟁을 넘어 아시아 경쟁을 도입했다.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가 인디애니페스트 사무국을 겸한다.

동기이면서 상영기획자다. 90년대 후반에 일을 시작할 때 이 세계에는 감독들만 있었다.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정도 영화제가 안정화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계의 대부분은 감독이고, 기획자는 한 줌도 안 된다. 좋은 기획자이자 상영활동가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작품을 많이 봐야 한다. 비평적 시선을 갖고 감독과 대등한 관계에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유진:** 대부분 기획자가 비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비평가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영화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다른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기획자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작품도 봐야 하고, 특히 사무국장이 솔선수범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나의 영역을 만들고 싶다면 작품을 보는 게 중요하다.

**동현:** 사실 어떤 영화제도 실무자들에게 영화를 다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독립영화제의 전통은 영화를 다 보라고 권유하는 거다.

**민아:** 인디다큐페스티발은 다큐멘터리라는 특정 장르를 다루고 있다 보니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네트워킹 기반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한 작품들을 상영하는 영화제와는 달리 우리는 독립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라는 특정한 맥락을 가지고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의 역할이나 위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봄' 프로젝트 제작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

**동현:** 마지막으로 영화제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요즘 영화제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민아:** 어떤 성격을 갖는 영화제에서 일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좋겠다. 영화제는 정말 많다. 이중 우리처럼 전문 영역이 분명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 건지 폭넓게 체험하고 싶은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가 작은 영화제일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다.

**유진:** 영화제는 축제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사무실에 앉아서 고되게 일해야 한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일하고자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남다른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다. 물론 이건 다른 일도 마찬가지일 거다.

**동현:** 자원활동을 먼저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상영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상영기획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다 관객에서 시작했다. 독립영화가 너무 좋고 다 같이 보고 싶어서 상영회를 조직하다가 영화제까지 하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른 사람과 함께 보고 싶다는 게 상영기획자의 기본 중 하나고, 그런 면에서 더 많은 관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정리 최혁규 녹취 김민범 사진 김지은

# 날날의 영화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일

부산국제영화제 김지석 수석프로그램머

부산으로 내려가는 열차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5월 중순,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을 새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부분 합의안을 발표했을 즈음이다. 이 결정이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약속장소인 부산국제영화제 사무실 근방에 도착해서도 끝내 말간 해는 보지 못했다. 우산 너머로 알곳은 하늘을 찌러보면서 이 비도 곧 그치리라, 부디 그리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이전에 강단에 서는 영화연구자 또는 영화평론가로 이름을 먼저 알렸다.

학교에 있으면서 《영화언어》라는 계간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 리뷰나 동시대 영화 흐름, 그리고 당시에는 드물었던 영화제 참관기를 다룬 잡지였다. 이런 활동들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영화제를 위한 밑거름 혹은 사전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중반에 공저 혹은 단독으로 쓴 글 중 상당수가 아시아 영화에 관한 것이었다. 아시아 영화에 주목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일본 영화 연구자 외에는 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 그즈음에 홍콩국제영화제, 일본의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에 다니면서 한 자리에서 전 세계 영화를 모아 상영한다는 것 자체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영화 서적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던 지역의 영화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장차 아시아 영화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영화언어》를 함께 만들었던 이용관, 전양준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롤모델이 된 영화제가 있었나?

초창기에는 홍콩국제영화제가 롤모델이었다.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곳은 홍콩국제영화제와 도쿄국제영화제였다. 도쿄국제영화제는 비교적 큰 예산으로 '아시아의 칸'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경쟁영화제였다. 반면 홍콩국제영화제는 유럽의 비경쟁영화제를 따라 말 그대로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여기서 중국 5세대 감독들이 처음 소개되었고, 중국과 대만의 영화인들이 만나기도 했다. 새로운 흐름을 발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까지 했던 것이다.

지금의 부산국제영화제와 홍콩국제영화제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톨론토국제영화제도 롤모델로 참고했다. 로테르담국제영화제는 새로운 영화의 발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마켓을 잘 운영했다. 톨론토국제영화제는 일찍부터 시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 작품이 영화제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세일즈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영화제들을 참고해가면서, 우리는 아시아 신인 감독들의 작품을 상영하는 '뉴커런츠'라는 경쟁 부문을 도입해 홍콩영화제와 차별화했고, 이후 3년째 되던 해에 프로젝트 마켓을 만들었다.

로테르담국제영화제는 시네필 문화가 잘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강 이남에 유일하게 영화학자가 있던 곳, 소위 말하는 영화평론가협회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부산이다. 이런 전통 덕분에 영화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높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영화제를 만들 때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영화제 기반이 모두 서울에 있었다. 또 소위 엘리트 예술을 하는 분들이 대중문화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러니한 건, 부산 시민들이 부산이 문화적 불모지라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다. 영화제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새로운 형태의 문화행사로 터트려주었고 그래서 더 큰 호응을 얻은 것 같다.

초창기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점차 '아시아 영화의 허브'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성장하게 된 동력은 무엇이었나?

창립멤버들이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던 것은 비경쟁영화제와 아시아 영화였다. 전 세계 영화제와 경쟁하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다. 결정적인 것은 프로젝트 마켓이었다. 부산프로모션플랜(PPP, 현재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으로 운영 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 마켓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보통 영화제에서는 완성된 영화를 소개하지만, 우리는 기획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투자자들과 연결해주었다. 이후 타 영화제와 또 한 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와 아시아영화펀드ACF를 만들었다.

마켓, 아카데미, 펀드가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밍에도 도움이 되었는가?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시아영화펀드로 후반작업 지원을 받은 영화나 아시아프로젝트마켓에 소개되었다가 투자 받은 영화들이 모두 부산국제영화제에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대체로 모든 영화제가 작품을 세계 최초 공개, 즉 프리미어 상영하는 것을 선호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프리미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발굴이다. 여기서 발굴이란 미지의 무명 감독을 찾아서 세계 최초로 소개하는 것이다. 만약 유명 감독의 이름값에만 안주한다면 젊고 유망한 새로운 작가를 찾을 수 없을 거다. 이 건 칸영화제 경쟁부문 프리미어와는 다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칸에서는 볼 수 없는 아시아 프리미어를 주로 상영한다. 우리의 보석은 거기에 있다.

영화제의 분명한 목표 설정과 그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이 영화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도 이어진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렇다. 아시아영화아카데미에서 매년 2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같이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그룹이 만들어진다. 누군가는 감독으로, 다른 누군가는 촬영감독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프로듀서로 데뷔하고 나면 이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보자면 합작 영화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지금까지 들려준 말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단순히 영화를 선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영화제별로 다른데,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어드바이저까지 맡고 있다. 누군가 좋은 시나리오를 썼다면 그 작품이 펀딩을 받는 것까지 같이 고민한다. 물론 아직 부족한 게 있는데 바로 배급 문제다. 토론국제영화제는 프로그래머만 10명이 넘는다. 이들 중 배급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자기가 선정한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돕고 있다. 좋은 영화제가 되려면 공공기관, 영화사 간의 공생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직접 배급사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지금 전주국제영화제가 일 년에 3~4편의 영화를 배급하면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영화를 배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위성 TV 채널을 생각해보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스타티비 StarTV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미디어 재벌 그룹인 아스트로 Astro가 중동까지 위성 채널을 오픈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다. 부산국제영화제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케이블TV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수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

20년 넘게 영화제 일을 해오면서 일 년 단위로 반복되는 영화제 업무가 몸에 배어 있을 것 같다.

정기적으로 가는 영화제가 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나면 그해 12월까지 도쿄국제영화제, 금마장영화제, 싱가포르국제영화제, 도쿄필맥스영화제를 다녀오고, 해가 바뀌면 이란의 파지르국제영화제, 방글라데시의 다카독립단편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 등을 순차적으로 다녀온다. 영화제에서 작품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 여러 루트를 통해 신작 정보를 얻는다.

혹시 개인 정보망이나 정보원이라도 있는가?

지금 내 핸드폰에 라인, 텔레그램, 카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이 깔려 있다. 아시아 영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보다 조금 나이 어린 친구들이 '오빠 부대', '형님 부대'를 결성해놓고 늘 연락을 해온다(웃음). 영화제 일을 20년 동안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다. 자국 신작 소식이 있으면 항상 알려주고 어떤 감독이나 배우를 초청할 일이 있을 때 발 벗고 나서주기도 한다.

프로그래머의 자질 중 하나가...

친화력이다.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나는 술은 안 마신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술이다. 김동호 위원장, 이용관 위원장 모두 술로 치면 전설들이다. 두 사람도 강수연 위원장은 못 이긴다. 술을 못 먹는 한국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해서 기억해주는 분들도 있다(웃음).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다.

초창기에는 이용관 위원장이 한국 영화를, 전양준 부위원장이 아시아 영화를, 내가 아시아 영화를 맡았다. 1회 때 150편 정도를 상영했는데 이후 상영작이 300편이 넘어가면서 아시아 지역만 해도 유럽, 북중미,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지금은 일곱 명의 프로그래머가 있다.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래머들이 일 년에 5,000편이 넘는 영화를 보고 그 안에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나는 일 년에 약 1,000편 정도를 보는데 파일을 만들어서 영화 볼 때마다 국가별로 꾸준히 기록하고 정리해나가고 있다.

작품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현재 만들고 있는 작품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6월이 되면 타이페이국제영화제를 간다. 거기에 초청된 대만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편집실로 찾아가 러프 컷이라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감독이 영화제를 신뢰해야 한다. 자기 영화가 부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세일즈가 얼마나 되는지, 이후에 다른 영화제에 초청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는 감독의 작품에 애정을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2년 전 <다이빙 벨>로 불거진 부산시와의 갈등이 김동호 명예 집행위원장을 새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부분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살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영화제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모든 영화인이 같다고 생각한다. 이후 영화인들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애초 내건,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정관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영화제가 지켜내야 할 유무형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다이빙 벨>의) 상영 철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단 1%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올해 영화제의 개최 여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년과 같을 수는 없다. 규모는 아마 무조건 축소될 것이지만 천막 영화제가 될지라도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가슴 아픈 건 영화인들이나 부산 시민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갖는 애정의 강도가 분명 예전과 달라질 것이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일부 언론의 보도로 한순간에 도덕적으로 해이한 집단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체력전과 심리전을 겪고 있다. 최근 어디서 위안을 얻는가?

올해 들어 줄곧 5분 대기조를 하느라 해외출장도 가지 못했다. 하루에 10번도 더 뚜껑이 열리는 일이 몇 개월 동안 반복되고 있다. 그래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전이다. 스태프들이 없는 토요일, 사무실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고 안정을 찾는다. 그때가 위안이랄 수 있겠다.

진행/정리 이도훈 사진 이승희



#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드림팀

영화제 기술팀 진미디어  
박종효, 박찬진, 최수훈



영화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기술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영화가 잘 상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제는 각 영화제 기술팀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진미디어. 서울환경영화제 폐막 직후라 피곤한 상태였지만 인터뷰는 시종 일관 진지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불철주야 좋은 상영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 진미디어, 그리고 각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찬진(이하 찬진):** 먼저 진미디어는 영화제 기술 관련 아웃소싱 업체다. 전반적으로 영화제 상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 하고, 디지털 영화 및 각종 미디어 콘텐츠 컨버팅도 하고 있다. 개봉영화 DCP 상영본을 만든다던가, 자막 상영본을 만드는 등 기술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요청하는 인코딩 작업, 장비 준비도 하고 있다. 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박종효(이하 종효):** 모든 구성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영화제가 1순위다. 극장이나 영화제 관련 업무는 내가 먼저 맡는다.

**최수훈(이하 수훈):** 운전과 재미, 외모 상향조정에도 힘쓰고 있다.(웃음) 상영장비를 관리하고 주로 영화제 외에 외부행사를 진행한다.

### 진미디어를 만들게 된 계기와 합류하게 된 과정에 대해 얘기해달라.

**찬진:** 2004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필름운송팀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12개 정도의 영화제에서 기술 업무를 맡게 됐고, 영화제 기술팀 인력 전문화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 진지하게 팀 운영을 생각하게 됐다. 내가 하는 영화제만이라도 사람들을 꾸려서 운영하고 싶어서 진미디어를 만들게 되었다. 초기에는 사무실도 없어서 영화제 사무국 여기저기에 더부살이하면서 지냈는데, 이대로는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천에 첫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좋은 기회로 지금의 공덕동 사무실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종효:** 전주에서 살았다. 자연스럽게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로 참여했고, 공대 출신이다 보니 기술팀에 관심이 생겼다. 워낙 극장을 좋아했고, 영사실에서 일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갔고, 그때 만난 분이 진미디어를 소개해 주어 2010년부터 일하게 됐다.

**수훈:** 처음 시작은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였다. 자원활동가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스태프더라. 영사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기술팀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영화제 일이 내겐 가장 기분 좋은 아르바이트로 느껴져서 계속 여러 영화제에서 일했다. 박찬진 실장과는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2013년에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합류하게 됐다.

### 정말 많은 영화제에 참여하고 있다. 진미디어의 1년 스케줄은 어떠한가?

**찬진:** 봄에 열리는 인디다큐페스티발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하는 웬만한 영화제는 다 맡고 있다. 한 달에 2~3개 영화제를 같이 진행해야 할 때도 있다. 서울독립영화제(이하 서독제)가 한 해의 마지막 영화제다.

**수훈:** 그래서 서독제의 의미가 크다. 서독제 폐막 이후에 쉴 수 있거든.(웃음)

### 기술팀의 일반적인 영화제 준비과정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종효:** 서독제를 예로 들면 우선 HDcam과 DCP(Digital Cinema Package) 상영본을 수급한다. HDcam은 방송용 테이프인데 감독님께 직접 받아서 우리는 검수만 진행한다. 테이프째로 상영하면 되는 HDcam과 달리 DCP는 사무실에서 검수하더라도 극장 영사 시스템에서 상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를 취합해 극장에 미리 방문해서 체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극장도 24시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새벽 시간을 활용한다. 처음엔 무조건 다 극장에 가져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는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 구축도 되다보니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노하우가 생겼다.

**수훈:** 장비담당으로선 극장의 엘리베이터 유무와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짐이 무거워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영화제 때는 GV를 진행하기 위한 장비와, 극장에 없는 HDcam 데크를 챙긴다. 여기에 DCP를 담을 외장하드, 모니터, PC 등을 준비한다.

**종효:** 해외작품일 경우 자막 장비도 기술팀이 맡아 준비한다.





김정남

#### 오랫동안 영화제를 했다. 그간 기술 변천사도 상당할 것 같다.

**찬진:** 영화제 기술팀의 변화는 극장의 변화와 함께해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제를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극장에는 필름영사기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35mm 필름으로 된 상영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당시 디지털 상영이라 함은 방송장비인 Digi-Beta나 HDcam과 같은, 테이프를 이용한 상영이었다. 필름보다 경제적이거나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많이 이용했다. 이러한 방식이 2010년 정도까지 쭉 이어지다가 DCP가 등장함으로써 상영 형태가 크게 변했다. 극장 영사 구조 자체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파일기반의 DCP상영으로 바뀌면서 영화제에서도 DCP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상영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예전과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인력이다. 실제 요즘 새로 생기는 극장 중에는 영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수의 인력만으로도 영화를 상영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제는 그렇지 않다. 상영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변화에 맞추어 장비나 기술을 구비하는 것도 필수다.

#### 말한 것처럼 영화제에서는 상영환경이 중요하다. 기술팀에서 특히 주의할 기술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훈:** 원본에 충실할 것을 최우선으로 둔다. 감독이 보기에 좋고, 우리도 보람을 느낀다.

**찬진:** 원본 상영이 원칙이지만, 상영관 조건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최대한의 퀄리티를 뽑아내려면 HDcam 테이프로 상영하는 것이 좋다.

**수훈:** 자신의 영화를 상영할 감독님들 생각을 많이 한다. 최선을 다하지

만 간혹 우리에게 불평이 들려올 때가 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보단 극장 설비 문제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극장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걱정된다.

**찬진:** 2008년부터 극장에 DCP장비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사용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3D장비 등 최신 설비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영사장비는 그렇지 않다.

#### 영화제를 하면서 생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수훈:** 예전에 특정 팀원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다. 모 팀장님이 극장에 나타날 때마다 사고가 난 적도 있다. 당시 그게 징크스처럼 굳어져서 팀원끼리 위치를 서로 공유하고 그랬다. 필름상영을 할 때는 하늘이 내린 사고가 많았다. 전기가 갑자기 나간다가, 기계가 이상해진다거나. 그래서 기술팀에는 샤머니즘이 있다. 부정한다고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하는 분도 봤다.

#### 영화제 하면서 뿌듯한 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찬진:** 영화제가 다 끝난 후, 같이 진행했던 기술팀 스태프, 자원활동가들과 유독 합이 잘 맞아서 계속 연락하고 뒤풀이도 하게 될 때가 있다.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생길 때 좋다.

#### 그렇다면 힘든 점은?

**수훈:** 우리가 영사실을 쓰는 기간은 딱 영화제 때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잠시 공간을 빌려 쓰는 외부인일 뿐이고, 영사실엔 원래 일하던 분들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영사기를 다룰 때 민감해진다. 상영이 잘 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편하게만 있을 수 없다. 밥을 안에서 먹지 못할 때도 많고, 새벽에 상영 테스트하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그분들의 업무를 연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화제 기간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중호:** SNS가 활성화되면서 영사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SNS에 비난하는 글이 올라올 때가 있다. 기술팀의 실수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 책임으로 몰려 인터넷상에서 심한 말을 들을 때 너무 힘들다. 차라리 우리에게 항의를 해 주시면 해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찬진:** 두 영화제를 비교하며 상영 컨디션이 좋았는데 어디는 별로였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 사실 두 영화

제 모두 같은 팀이 진행하는 거였다. 기술팀의 잘못이 아니라 극장 상황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 팀워크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찬진:** 구성원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으면 바로 진행을 하기도 한다. 반대로 내가 안건을 이야기하면 팀원들이 잘 수용해주는 편이다.

**종효:** 진미디어 구성원들은 모두 젊은 편이고 서로 나이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다. 직장상사와 후배가 아닌 형, 동생으로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다. 운영방식이나 일의 세부사항을 대화를 통해 바꾸고 개선하곤 한다.

**수훈:** 개인적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다. 사무실 사람들이 잘 이해해주고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고마움이 존재하니까 사이가 나빠지기 힘들다. 언젠가 내 영화를 진미디어가 참여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된다면 꼭 극장에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기술팀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기술 업무기도 하지만 영화 일이기도 하다. 각자가 생각하는 영화란?**

**찬진:** '주말의 명화'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영화를 더 많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영화 보는 것이 일이 되어버렸다. 항상 재밌게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해방의 창구로 상업영화를 보기도 한다. 내가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작업할 때는 정말 재미있다.

**종효:** 나는 영화보다는 극장이라는 공간이 좋았다. 영화관이 좋아서 이 일도 하게 됐다. 영화를 보러 가셔도 영화보다도 영화관 상태에 더 신경을 쓴다.

**수훈:** 영화감독이 목표다. 팟캐스트 '어제영화'도 진행하고 있다. 언젠간 내가 일하고 있는 영화제에서 내가 만든 영화를 내 손으로 상영하고 나서 관객들과 대화하는 상상을 한다. '영화'라는 것이 나와 뗄 수 없는 단어가 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씩 부탁드린다.**

**찬진:** 기술팀도 영화제가 잘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자그마한 실수를 했을 때, 무작정 질타하기보다는 응원의



박찬진



송수훈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상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 영화를 즐겁게 봐주셨으면 한다.

**종효:** 언제나 좋은 상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관객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수훈:**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원활동가 분들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힘을 많이 얻는다.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영화제가 많아졌으면 한다.

진행/정리 봉수지 사진 김지은

# 보이지 않는 당신에게 우리는 늘 영화로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인디다큐페스티벌  
前 홍보팀장 김수연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초, 전주 영화의 거리의 한 카페에서 김수연 인디다큐페스티벌 前 홍보팀장을 만났다. 긴 러닝타임으로 유명세를 탄 상영작 <해피 아워>를 관람한 직후였다. 다섯 시간이 넘는 영화를 보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텐데, 인터뷰 장소에 나타난 그녀는 영화로 가득 찬 축제인 영화제 안에 있는 것이 마냥 행복해 보였다.

독립영화와 독립영화제의 오늘과 내일, 그 안에서도 홍보팀으로서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김수연 홍보팀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김수연이다. 2006년 서울독립영화제(이하 서독제) 자원활동가를 시작으로 처음 독립영화에 발을 들이게 됐다. 2007년 인디다큐페스티벌(이하 인다페)과 미장센단편영화제 자원활동가를 했고, 서독제에서 스태프와 자원활동가의 중간 역할인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2008년 3월 서독제 홍보팀으로 입사해 처음으로 1년 내내 영화제를 준비하고, 2009년



에는 팀장이 되었다. 2010년에 퇴사하여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원으로 2년 일했고, 이후 독립영화 상영회 매니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홍보 담당, 조세영 감독의 <자, 이제 댄스타임> 배급 프로듀서로 시간을 보냈다. 2015년 인다페 홍보팀으로 3개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행정팀 2개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홍보사업담당으로 반년 있다가 올해 인다페 홍보팀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 왜 홍보팀이 되었는지?

자원활동가 일이 너무 재밌어서 영화제 일을 하고 싶었다. 서독제에서 스태프 활동 제안을 받았고 마침 학교를 졸업해서 시작하게 됐다. 그때 영화제 각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랐다. 영화제 측에선 내가 홍보팀 스태프의 소양을 많이 가졌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다른 팀이 더 잘 맞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홍보 일도 꽤 좋아하지만, 전문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쫄릴' 때도 있다.(웃음)

### 영화제 홍보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영화제가 열리기 전, 진행되는 동안, 끝나고 난 후까지 시기별로 어떤 업무가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독립영화제에 한정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 내가 홍보팀으로 경험해본 영화제는 서독제와 인다페인데 두 영화제에서의 업무가 약간 달랐다. 일반적인 것부터 말하면 영화제 전반을 통틀어 매체 관리를 하는 게 홍보팀의 중요 업무다. 보도자료 작성하고 언론, 개별 기자 관리를 한다. 후원 및 협찬도 담당한다.

본격 영화제 준비 시즌이 되면 먼저 그 해의 콘셉트를 잡는다. 작년 결과를 바탕으로 관객들이 무엇에 만족했는지, 키 이미지(key image)는 어떤 것으로 가지고 갈 건지, 어디에 무게를 두고 홍보를 할 것인지 구획한다. 디자이너와 논의해서 포스터와 티켓 카탈로그, 프로그램 북 및 여러 선재물도 준비한다. 매체 리스트업, SNS를 통한 홍보, 이벤트 기획 등도 홍보팀장인 내가 맡는다. 영화제가 진행되는 중 홍보팀의 업무는 데일리(축제소식지) 제작과 게스트 응대다. 서독제는 규모가 있다 보니 매일 보도자료도 행사 스케치와 보고용 협찬사진 기록도 했다. 인다페는 스태프가 세 명뿐이었기 때문에 자원활동가 관리, 부스 운영, 이벤트 진행만으로도 바빴다. 영화제가 끝난 뒤엔 일을 정리한다. 협찬 보고서를 쓰고, 행사가 잘 이뤄지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평가 회의를 한다.

### 매년 바뀌는 영화제 포스터 디자인도 관심거리다. 사전에 어떻게 콘셉트를 잡는지, 완성된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다.

인다페는 10년 이상 함께한 이진아 디자이너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해도가 높고 작가로서의 역량도 뛰어나다. 사무국에서 말하기 전에 스케치 이미지를 가지고 와준다. 서독제에서는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정한 그 해의 슬로건을 디자이너에게 전달한 뒤 그

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받는다. 여러 시안이 오면 거기서 이야기를 나눠 가며 발전시키는 편이다. 메인 이미지가 나오면 해당 컬러를 홍보에 이용한다. 보도자료와 뉴스레터 폼, SNS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념품 디자인도 통일감 있게 한다. 인다페는 매해 꾸준히 나오는 품목이 있다. 수집가도 존재한다. 구체적인 수량이나 디자인 등은 사무국과 디자이너가 회의를 통해 예산과 의견을 조율하며 정한다.

### 홍보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소소하게 있다. 독립영화제는 규모가 작고 항상 찾는 관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곤 하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누구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어딜 자주 가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내 참고하며 홍보를 하다 보면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 그때 보람 있다.

### 반대로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영화제 스태프라면 다들 그럴 테지만, 잘해도 티가 안 나는 점이 힘들다. 못하면 와장창 깨지고.(웃음) 홍보팀이 맡은 업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모든 원인을 '홍보가 안 돼서'라고 얘기한다. 예전에는 상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잘 분석해서 길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다. 물론 그걸 막막할 때는 어렵다. 이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힘든 부분이다. 홍보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든 그렇다. 영화제 스태프를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마음에 있던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 이룰 때 높은 연봉, 안정, 명예 때문이 아니었을 거다. 자신만의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다. 그걸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떠나가게 두는 것은 독립영화판 전체의 손해다. 내가 홍보에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영화제에서 홍보 담당으로 꾸준히 일하며 굵직한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홍보팀은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가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인식되곤 한다. 실제 담당자인 나도 다른 팀의 업무를 우선시하느라 홍보에 더 투자하자고 주장하지 못한 적이 있다. 규모가 더 큰 영화제에서는 홍보팀 업무에도 중점을 둘 것 같은데, 겪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홍보팀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영화제 스태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영화를 좋아해서 프로그램팀, 축제를 좋아해서 운영팀을 지원하는 게 보통인 것 같다. 하지만 영화제를 좋아해서, 발을 담그고 싶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홍보팀 업무를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진행/정리 이은지 사진 김지은

# 영화제를 만드는 스태프, 축제를 완성하는 자원활동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마케팅팀 박사라

영화제 한 가운데에서 같은 옷을 입고  
누구보다 활발하게 축제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다. 영화제의 꽃이라 불리는 자원활동가.  
영화가 좋아서 한다면 정작 영화는  
볼 수 없다는 이 활동은 왜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운 걸까. 휴학계를 내밀고  
한 해를 아홉 번의 영화제 자원활동으로  
채우며 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뒤, 어느덧  
다섯 번째 영화제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다는 박사라 씨를 만나보았다.

##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달라.

많은 영화제의 자원활동과 스태프를  
거쳐 현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마케팅팀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협  
찬 제안과 협찬 물품 배분을 담당한다.

## 자원활동가로서 많은 영화제를 경험했다. 기억을 되짚어 이야기해 달라.

처음 시작은 여성인권영화제였다. 수기로 티켓을 발권하는 일을 했고, 이후에는 서  
울독립영화제 관객심사단, 인디다큐페스티발 기술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  
램팀, 인디포럼 기술팀, 서울환경영화제 상영관팀, 미장센단편영화제 기술팀, 부천국  
제판타스틱영화제 기술팀, 정동진독립영화제 데일리팀으로 활동했다.

### 영화제 자원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영화이론을 함께 공부하며 다양한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다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영화와 가까운 곳에서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영화제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영화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 기술팀을 많이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영화제 자원활동가를 하면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바쁘게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영화를 볼 틈이 없다. 그러나 기술팀만은 유일하게 상영되는 모든 작품들을 볼 수가 있다. 영사실 혹은 상영관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 다른 자원활동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는 것은 아쉬웠지만,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좋았다.

### 속상했던 순간과 힘이 되었던 순간이 있다면.

자원활동가에게 함부로 하며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반대로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같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다. 자원활동가는 말 그대로 자원해서 활동을 하는 것인만큼 순수한 애정으로 영화제에 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태도는 자원활동가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원활동가에게 감정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본다.

### 오랜 기간 영화제 자원활동가를 하면서 얻게 된 것이라면 무얼까?

지금 내 인생을 이루는 커다란 영역이 생긴 것 같다. 영화제 자원활동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된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다. 활동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연을 이어오고 있다.

### 우리 역시 영화제 자원활동을 통해 만났던 사이이다. 여섯 개 정도의 영화제 자원활동을 함께 하던 우리가 이제 영화제 스태프와 인디 스페이스 근무 4년차가 되어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금도 내 자리 맞은편엔 서울독립영화제 자원활동가일 때 스태프로 만났던 분이 앉아있다. 우리가 함께 자원활동가를 할 때 만났던 그 분이다.(웃음) 반대로 내가 스태프로 자원활동가를 관리할 때 만났던 친구를 같은 영화제 스태프로 만나 함께 일하게 된 적도 있다.

### 본격적으로 영화제 스태프를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달라.

졸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 불안감이 들 즈음 주변에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는 조언을 들었고, 자원활동가를 하는 동안 항상 궁금했던 영화제 스태프의 세계가 떠올랐다. 2012년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자원활동가를 관리하는 운영팀으로 스태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미장센단편영화

제 3회, 서울독립영화제 1회를 거쳐 현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 자원활동가로서 그리고 스태프로서 경험하는 영화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원활동가일 때는 영화제를 즐기겠다는 마음이 8할이었고, 지금은 일을 잘 해서 영화제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마음이 8할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영화제는 스태프가 없더라도 일단 개막하면 폐막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자원활동가가 없다면 그 어떤 행사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제를 준비하는 것은 스태프지만 영화제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데엔 자원활동가의 몫이 크다.

### 스태프가 되고 보니 영화제가 다르게 보이는 점이 있었다면.

자원활동가일 때는 스태프가 바쁘게 뛰어다니면 그게 참 멋있어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영화제가 개막하고 내가 뛰어다니는 상황이 오면 '아, 정말 큰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웃음) 영화제 구석구석의 일을 접하며, 자원활동가일 때 많이 들어왔던 '자할일 때가 좋은거야'라는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곤 한다.

### 자원활동가를 대할 때 특별히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 스태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원활동가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최우선으로 신경 쓰는 것은 밥이다.(웃음) 영화제 기간에 바빠서 정신이 없더라도 인사말처럼 하는 말이 "밥은 먹었어요?"일 정도다. 소중한 자기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분들이니 소속감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스태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계속해서 다른 영화제에 도전하고 싶은가.

더 다양한 영화제를 경험해보고 싶다. 영화제 업무는 대개 단기 계약직이 많아 계속 다른 일들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해 영화제를 하나씩 치러냈을 때 찾아오는 그 성취감이 계속해서 다른 영화제에 도전하고 싶도록 만든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화제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 같다.

### 영화제 자원활동가를 하며 영화제 스태프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화제는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제 자체에 대한 애정 없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알다시피 보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생각지 못한 난관 속에서도 정해진 기간에 영화제를 온전히 끝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해야 한다. 마냥 축제가 즐겁던 자원활동가일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막중한 책임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더불어 즐기는 마음까지 있다면 금상첨화. 꼭 도전해보길 바란다.

진행/정리 김도란 사진 김지은

## 독립(獨立)이라는 것

2012년 말, 인천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모으자는 취지로 '작은 영화제 In-Film' 준비모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인천에서 활동하는 25명의 감독들과 작은 영화제를 진행했다. '작은 영화제 In-Film'은 그동안 교류가 없던 인천의 영화인, 미디어교육 활동가, 독립·단편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몇 번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인천 영화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해 8월 31일 50여명의 추진위원이 모여 인천독립영화협회(이하 인천독협)를 창립했다. 이제 겨우 세 살이다.

다른 지역 독립영화협회와 비슷하게 인천독협의 주요사업은 영화제다. 모든 영화제가 그러하겠지만 하나하나 뜻 깊은 영화제였다. 인천 영화인들의 첫 만남을 열어준 '작은 영화제 In-Film'은 2013년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총 25개의 작품을 상영했다. 마지막 날인 9일에 '인천 영화인 수다파티'를 통해 인천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들 어디 숨어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그 반가움이란!

2014년부터는 명칭을 변경하여 '2회 인천독립영화제'를 진행했다. 상영회 성격이 강했던 2013년과 달리 2014년에는 인천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경쟁색션을 두었다. 여러 토론 끝에 '로컬시네마'를 지향하기로 했다. 작품이 적게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인천에서 작품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싶었다. <지역경쟁색션> 5개(일반4, 청소년1)에서 20편, 타 지역독협의 추천으로 <초대색션>에 9편의 작품을 상영하였고, 약 1000여명의 관객이 찾아왔다.

'3회 인천독립영화제'는 <지역경쟁색션> 6개(일반5, 청소년1)에 20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인천영상위원회와 함께 '영화로 보는 인천'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상업영화에서 인천을 보는 시선, 지역에서 단편작업을 하는 영화인들의 입장 등을 이야기 나누었다. 2회와 달리 관객이 많이 찾지는 않았지만, 많은 영화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홍보가 미진한 상황에서도 먼저 문의를 하기도 하고,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다. 그리고 3회 영화제가 끝난 후 여러 명의 감독들이 인천독협의 회원이 되었다.

인천독협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던 만남들이다. 수도권 특성상 인천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자 한다. 상업영화 스태프를 하거나 독립영화를 제작하거나 다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활동한다. 그래도 인천에 서로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풍문으로 들었고, 우리도 모여보는 뜻이 맞아서 2012년에 처음 모였다. 그 이후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로컬시네마를 지향하기로 한 것이다. 영화제를 하기에는 인력이 많지도 않고, 스태프에게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영화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나 직장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미디어교육을 하고, 독립영화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따뜻한 햇살로 가득하지는 않다. 아직 인천독협은 지원금이 있지 않고, 기획사업이나 회원이 많지 않아 독협 사무국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은 사무국에 한 명의 상근인력(본인)을 두었으나, 현재는 운영위 체제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상근인력이 기획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운영위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인천독협을 운영위 체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을 더 늘리고, '영화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모임' 등을 통해 내실을 챙겨가는 시기가 될 것 같다.

독립(獨立)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라면 '홀로 서는 것'이다. 현재 인천독협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혹자는 '니네들끼리 지지고 묶는다고 뭐가 되겠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천독협 회원들이 '지지고 묶는다'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도 그냥 상영회 같은 작은 영화제를 해보자고 모였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이다. '우리끼리 지지고 묶는다'면, '연대'한다면 독립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 자꾸 생각나던 승철이의 얼굴

### 박정범 <무산일기>



박형사의 도움으로 의류공장에 면접을 보러 간 승철이는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거절당한다. 그렇다면 다른 일자리는 없냐고 재차 묻는 박형사와 곤란해하는 공장장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승철이는 뒤돌아서서 공장장과 자신이 썼던 컵을 씻는다. 그런 승철이에게 박형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며 화를 내지만, 승철이는 말없이 컵에 묻은 물기를 털어낼 뿐이다.

컵을 씻고 있는 승철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보이지 않는 승철이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지만, 나는 애써 그 표정을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 그저 영화를 보는 내내 승철이의 뒷모습이 나올 때마다 승철이가 짓고 있을 표정을 보는 게 두려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승철이의 뒷모습만 쳐다보았다. 처음 <무산일기>를 보았을 때 나는 승철이의 표정을 마주 볼 자신이 없었다.

두려워했던 그 얼굴을 <무산일기>가 아닌, 다른 영화에서 결국 보게 되었다. 그 영화는 <125 전승철>이었고, <무산일기>의 초고이기도 했던 단편 영화였다. 처음 <무산일기>를 보고 난 후, 박정범 감독님의 영화들을 찾던 중에 우연히 <125 전승철>이라는 단편 영화를 보게 되었고, 그 영화에서 같은 상황을 마주한 승철이를 보게 되었다. <무산일기>의 승철이와 마찬가지로 <125 전승철>의 승철이도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거절당하곤 했다.

<125 전승철>에서도 공장장은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승철이에게 호감을 보이다가 승철이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태도가 돌변한다. 그러나 <무산일기>의 승철이와 달리 <125 전승철>의 승철이는 본인의 일자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장장과 박형사의 앞에 앉아 황망히 어딘가를 바라본다. 그때에 비로소 나는 승철이의 표정을 보게 되었지만,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때의 승

철이는 무기력해보이기도 했고, 담담해보이기도 했으며, 애초에 표정이라는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승철이의 기분을 모두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었지만, 괜히 승철이가 혼자 견뎌왔을 시간들이 그려졌다.

그 후부터 때때로 승철이가 생각이 났다. 영화를 보고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다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저 승철이가 생각날 때마다 <무산일기>를 다시 보는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자주 생각나는 승철이를 모른 척 해보려고 했지만, 이상할 만큼이나 오랫동안 승철이는 내게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다가 결국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승철이를 대신해서 스스로에게 되묻는 날들도 생겼다. 그때부터 나는 영화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무산일기>는 내게 가장 소중한 첫 영화가 되었다.

#### 최지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후 ‘CAMPUS CINE21’에서 대학생 기자로, 인디스페이스에서 관객기자로 영화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공정영화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극장’에서 영화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글을 쓰는 건 어렵지만 영화에 대한 글은 오래 쓰고 싶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너와 만나 두 손을 꼭 잡고 아무 이야기라도 하고 싶어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개관하던 2007년 11월 8일, 사랑스러운 트레일러도 처음 공개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던 트레일러는 명동에 있던 인디스페이스가 광화문을 거쳐 서울극장 안에 자리잡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트레일러를 만든 장형운 감독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TELL ME SOMETHING은 독립영화에 대한 개인들의 기억을 직접 들어 보는 일종의 구술사 코너다. 생생한 육성으로 전해지는 사건, 사고, 에피소드를 통해, 독립영화의 중요한 고비들을 다시 기록하려고 한다. 꼭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었던 궁금한 사건 혹은 인물이 있다면 NOW로 연락 주시길. (편집자)

2007년 인디스페이스 개관할 때 승환이 형(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의 부탁을 받고 트레일러를 만들게 되었어요. 독립영화계는 부탁으로 돌아가잖아요. 재미있고 감성적인 것으로 하자고 마음먹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일이라는 게 부탁을 받고 하든 어쨌든 똑같더라고요. 구상하고 스토리 짜는 게 오래 걸렸어요. 스토리 정하고 만드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인디밴드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 영화를 봐도 음악이 같이 나오는 장면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영상과 음악이 딱 맞을 때가 영화의 마술적인 순간 같거든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남자 주인공이 음악 하는 애여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요. 인디밴드가 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레일러 속 노래 부르는 청년 '용관이'가 주인공이 된 거죠.

음악은 김동욱 감독이 만들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음악을 당장 전달 해달라고 한 거예요. 내일 녹음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섭외를 한 거죠. 마감일이 바로 인디스페이스 개관식이어서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노래도 김동욱 음악감독이 부른 거예요. 자기는 노래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 억지로 시켰어요. 가수가 부르는 게 싫었거든요. 가사에 내레이션 같은 성격이 있어서 전문 가수 느낌이 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급하게 섭외해서 하루 만에 다 녹음하고 노래도 부르게 했어요. 김동욱 감독한테 미안하고 고맙죠.

제 목소리도 트레일러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사, “용관이, 올까?” 면도크림이 하는 대사가 바로 제 목소리예요. 그다음 나오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사운드 디자인 하시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박동주 씨 목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당장 성우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부탁했는데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처음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을 때 반응이 좋았어요. 귀여우니까. “인디스페이스는 자신과 딱 맞는 트레일러를 가졌다”는 평을 받았죠. 화려한 건 잘 못해도 아기자기 쪽으로는 제가 좀…….(웃음)

비용을 얼마 받았냐고요?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런 일은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작업하는 거니까. 사실 그때야 어려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돈을 못 벌면 그만인 거지만 지금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포기해야 하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손을 봐도 좋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트레일러를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것, 지금까지도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 상영 전 제가 만든 트레일러가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는 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디스페이스에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관객 사이에서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반응이 나오는 걸 볼 때 재미있기도 하고요.

정리 김화영

< 조금 특이한 (?...)  
< 독립영화 파티에 초대받다 >



© 토끼리

## 서울독립영화제2016 작품 공모 보고 싶어, 니 영화!

2016년 8월 9일(화) - 8월 31일(수)

평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토/일, 공휴일 휴무)

\* 8월 31일(수) 마감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한 우편 및 이메일에 한해 접수

**출품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누구나

(단,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 동포의 경우 출품 가능)

**제출 자료** 1. 온라인 출품신청서: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접수

2. 심사용 스크리너(아래 중 택1)

- 심사용 영상파일 대용량 메일 제출 - 심사용 DVD 2매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제출처**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 프로그램팀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6(공덕동 82-9) 2층 (04205)

이메일: prog@siff.or.kr 전화: 02) 362-9513 팩스: 02) 363-3154

www.siff.kr fb.com/siff.kr Twitter@siff.kr

**서울독립영화제2016은 12월 1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개최됩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배포처

<b>서울</b>	책방 만일
서울아트시네마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씨네큐브	CGV아트하우스 대학로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제비다방
아트나인	<b>경기/인천</b>
아트하우스 모모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인디스페이스	성남미디어센터
인디플러스	영화공간 주안
필름포럼	<b>강원</b>
한국영상자료원	속초 동아서점
KT&G 상상마당 시네마	<b>대전/충남/충북</b>
KU시네마테크	대전아트시네마
KU시네마트랩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미디어트	<b>광주/전남</b>
서교예술실험센터	광주극장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맥가핀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순천 책방심다
더 북 소사이어티	<b>전북</b>
뽕스북스 홍대점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책방 이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페고)
책방 풀무질	<b>대구/경북</b>
상수동까페	동성아트홀
성영태 커피 하우스	안동 중앙시네마
아디스아바바	오오극장
유어마인드	<b>부산/경남</b>
이리카페	국도예술관
카페 공드리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마을과마디	FROM



NOW

NO.10 2016.06.09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

**발행** (사)한국독립영화협회 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자문** 조영각, 김동현

**기획** 김도란, 김승오, 김지은, 이도훈, 이은지, 최혁규

**담당** 김승오 **진행** 김지은, 봉수지 **디자인** 이혜경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공덕동 82-9) 2층 (04205)

**전화** 02-362-9513, 02-334-3166 **팩스** 02-363-3154

**이메일** siff@siff.or.kr **홈페이지** siff.kr / indienow.kr

당신과 함께 만든 영화관  
인디스페이스 후원캠페인

Save Our Story  
...  
Save Our Space

독립영화 진흥관  
**인디스페이스**와 함께 만들어진 독립영화와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주세요.  
독립영화를,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해 주세요.  
넘어지지 않고, 더욱 든든한 독립영화와 표현의 자유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 함께 만드는 영화관 인디스페이스를 지키는 방법



#### 나눔자리 후원 : 200만원 이상 후원

인디스페이스를 후원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  
나눔자리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의자에 영원히 새겨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영화관. 나의 이름이 새겨진 좌석을 만들어 보세요.



#### 주춧돌 후원 : 매월 1만원 이상 후원

CMS(자동이체) 가입을 통해 매월 약정 금액을 후원하는 방법.  
독립영화 아지트, 인디스페이스를 지키는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인디스페이스 라운지 / 온라인 가입 가능)



#### 크라우드펀딩 : 소셜펀치

인디스페이스 나눔자리 후원함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상영관 좌석명패로 남겨드립니다.

후원문의

070.8236.0366 | indie@indiespace.kr